

무용교육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신 남 수*

Abstract

The Influence of Dance Education on the Emotion of Adolescents

Shin, Nam-su (Chonnam Buyoung high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 of dance education on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as students involved in two girls' high school. After doing the question research of the total number of 467 third year girl's high school students in Yeosu city consisting of 156 students taking the various dance courses and of 311 students not taking them.

The collected data was calculated the descriptive statistics(M and SD) as to the index grade of each emotional factors using SPSS/PC⁺ and made the covarianc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sum.

First, there was difference in self-awareness, self-control, patience, optimism, general emotion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sympathy and softness as a function of the experience dance and non-experience dance.

Second, there was difference in patience as a function of the standard of dance technique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sympathy, self-awareness, self-control, softness and optimism.

Third, there was no difference in sympathy, self-awareness, self-control, patience, softness and optimism as a function of the consciousness of the dance experience.

Fourth, there was difference in general emotion as a function of the items of dance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sympathy, self-awareness, self-control, patience, softness and optimism.

To synthesize these above results, dance education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emotion in the growth period and the adolescent period and it can be assumed that when the voluntarily and creative expression activity is done successfully in the emotional art subject among many learning activities, the social needs and the desire for achievement can be satisfied properly and accordingly the positive image of human being along with the emotional security is formed.

In conclusion, the dance experience in the adolescent period is said to be very important so as to express the plentiful emotion with each individual and develop the emotion which can be regulated on its own.

* 전남 부영여자고등학교 교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기계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여 인간 본연의 자세로부터 이탈감,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인간성 상실이라는 커다란 난제를 안고 있다. 특히, 복잡한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야기시킨다.

20세기는 과학적 지능의 명석함이 성공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21세기에는 IQ도 중시되지만 그 이상으로 총명하고 풍부한 E.Q(Emotional Quotient)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다. 즉 균형잡힌 감정적 자질을 갖추었느냐의 감성지수가 중시되고 우리들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감성 개발의 중요성을 지각하기에 이르렀다(조은경, 1996). 그에 따른 문명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내적으로 나 자신과 가족,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 모두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쌓아가야만 한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누구나 저마다의 사회적인 욕구와 열망이 생기고 그에 따른 압박이나 긴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서로간에 미움과 증오가 쌓이고 또 폭력과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정신적 고통과 불행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가가 관건인데 그것은 자신에게 조성되어 있는 감성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그 대응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현대의 사회 생활에 있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즉 감성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감성의 개념을 용어화시켜 감성 지능이라고 하며 감성의 영역을 통칭해서 E.Q라고 부른다(윤종옥, 1997).

청소년들의 정서는 변덕스럽고 우울하기도 하고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많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대체로 급격한 신체적 성장, 성적 성숙,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부담감, 자아 정체감의 혼란, 생활 철학의 미숙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사는 일관성 있는 태도로 수용하고 가능한 대화를 통해 스스로 자아 정체감을 갖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참을성이 없고 고집이 세며 억지로 논리를 펴는 수가 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감의 결여,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형식적 사고 경험의 결핍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혼란, 불안, 갈등,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한다. 또한 여러 가지로 경험하게 되는 좌절감을 청소년들은

기성 세대에 대한 반발, 기존가치의 부정 등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김광용, 1991). 이처럼 정서는 개인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정서 상태는 여러 가지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신체, 정신,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친 제반 활동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과거 주지주의적 활동에서는 지식과 지능 습득을 강조하였으나 오늘날 교육은 전인적인 인격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정서의 문제는 일상생활은 물론 주어진 전체 환경에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데 주요한 측면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여기에 그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무용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예술적 소질을 의도적인 신체 활동을 통하여 개발하고 학습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전과 변화를 유도하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손경순, 1982)이며 또한 원만한 인간 형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으로 그 기능적인 면을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학습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신체 활동 즉 무용수행의 경험을 통해 사상과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원만한 성격 형성에 무용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윤종옥, 1997). 즉, 무용은 미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불안을 완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무용을 습득하는 과정은 하나의 인간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무용 습득 과정에서 얻는 정서적 안정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여 침착하게 만들며, 정신적 피로를 느끼지 않게 한다. 결과적으로 무용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으로 건강미를 소유하게 하며, 조화로운 인격의 형성을 도모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간을 만들도록 하여 준다(윤미영, 1996). 또한 교육이란 삶을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도 삶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John Dewey는 강조하였고 J. piaget는 인간은 성장하면서 지각 조작 능력과 개념 형성과 같은 좀더 복잡한 활동인 움직임 교육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것은 신체 활동을 매개로 하는 움직임 교육은 신체를 통한 표현 수단, 정서 발달, 상상력과 창의력, 깊은 통찰력에 의한 판단의 습관 태도를 길러주는 인간 실천의 도구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 무용의 교육적 역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김화례, 1998).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감성 지능 발달을 위한 교육은 대단히 가치 있고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감성 지능 교육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무용교육이 청소년의 정서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 감성지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을 교육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적하는 교육의 공통적인 문제는 정서 교육의 결함과 창의성의 결여를 든다.

정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행동에 적응하며 일생 동안 행동의 기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청소년기에는 정서 발달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과 사회성, 도덕성, 자아의식, 창의성 등과 같은 정신적 발달이 활발한 시기이며 사회 생활에 대한 적응력 함양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갖는 학습과 경험은 평생을 두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용교육은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창의력, 즉흥력, 상상력, 협동심 등을 익히고 발휘하여 간접적으로 사회적, 정신적 성취의 욕구가 실현되고 해소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서의 함양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윤종옥, 1997).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정서 함양을 목표로 하는 무용교육에 있어서 정서나 창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용학습은 대부분 교사가 지시하거나 모방을 할 뿐 자기 표현을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획일성보다는 개성을, 모방보다는 창의를 이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종래의 기능 중심적인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박혜정, 1995).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하여 자신이 느끼는 바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공적인 느낌, 자기 활동의 주도권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서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용 교육은 즐거운 신체적 움직임에 경험하고 그 움직임에 대한 창조적 표현을 통하여 청소년의 인간화 교육에 가치가 있다. 그러한 무용의 가치를 성찰하여 보면 첫째, 움직임의 즐거움과 감정의 정화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꾀하게 되고 둘째, 유산소성의 대근육 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생리적 효율성을 높이며 셋째,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가운데 의사 소통이 되어 집단 상호 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성격을 육성케 하고 넷째, 춤의 모방과 전수를 통하여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기능이 있다(김화숙외 8인, 1996). 즉, 무용은 자신의 생활경험에 기반을 둔 감정이나 인상을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예술인 것이다. 타 예술과 달리 무용의 재료는 인간 그 자체이므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표현 대상에 대한 사고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자아인식의 단계를 거치며 감성을 키워 나가게 된다(김화숙,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에 무용교육이 단편적인 주지 교육을 통한 두뇌 계발보다는

인간의 정서 순화와 사회적 성격 등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

3.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라 공감성, 자기 인지력, 자기 통제력, 인내력, 유연성, 낙관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무용 기술 수준에 따라 공감성, 자기 인지력, 자기 통제력, 인내력, 유연성, 낙관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무용 경험 지각에 따라 공감성, 자기 인지력, 자기 통제력, 인내력, 유연성, 낙관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무용 경험 종목에 따라 공감성, 자기 인지력, 자기 통제력, 인내력, 유연성, 낙관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대 상

본 연구는 무용교육이 청소년기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자 고등학교 4개교 중에서 주당 1시간의 무용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2개교에서 3학년 156명과 무용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2개교에서 3학년 311명, 총 4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기 간

본 연구의 세부 추진 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일정

순번	연구 수행	기 간
1	연구 계획	1998 . 8 ~ 1999. 4
2	선행 연구 및 자료 수집	1998 . 10 ~ 1999. 6
3	문헌 연구	1998 . 11 ~ 1999. 7
4	설문지 작성	1999 . 6 ~ 1999. 7
5	설문 조사	1999 . 8 ~ 1999. 8
6	설문지 회수 및 검토	1999 . 8 ~ 1999. 9
7	자료 분석 및 결과 처리	1999 . 8 ~ 1999. 9
8	논문 작성	1999 . 4 ~ 1999. 10

3. 측정 도구 구성 영역 및 내용

본 연구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무용 교육이 청소년기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E.Q 심층 진단 테스트(황태호, 1997)를 사용하였으며, 본 검사의 하위 요인은 공감성 35문항, 자기 인지력 35문항, 자기 통제력 35문항, 인내력 35문항, 유연성 35문항, 낙관성 35문항으로 전체 문항수는 210개 문항이며 각 요인별 문항 구성은 YES/NO유형 20문항, A/B테스트 10문항, 다항식 선택 테스트 5문항으로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요인 및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측정 도구 구성 영역 및 내용

번호	구성영역	내 용	문항수
1	공감성	남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 등에 대하여 자기도 그러하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이 정도의 접수가 높은 사람은 사회성이 발달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 타인의 호응이 좋은 편임	35문항
2	자기 인지력	자기 자신을 알아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는 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를 알 수 있음	35문항
3	자기 통제력	자기의 욕구나 동기를 통제해 나가는 것으로 사회의 규범과 규율에 동조하여 극단적인 행동이나 우범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성숙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음	35문항
4	인내력	참고 견디는 힘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을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주체성을 지켜 나가는데 보탬이 됨	35문항
5	유연성	부드럽고 원만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어떤 일이나 어려움이 없게 대처함	35문항
6	낙관성	어떤 난관이나 좌절에 굴하지 않고 미래의 삶은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잘되어 갈 것으로 희망하거나 관측함	35문항
	총정서		210문항

조사 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조사 도구의 항목별 신뢰도 검사 결과

요인\구분	문항수	신뢰도 계수(alpha)
공감성	35문항	.8078
자기 인지력	35문항	.8298
자기 통제력	35문항	.7540
인내력	35문항	.7754
유연성	35문항	.8093
낙관성	35문항	.8127
전 체	alpha =	.8171

4. 조사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관련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사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에게 설문 의 취지와 응답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뒤 자기 평가 기입법에 의해 작성하도록 한 뒤 즉시 회수하였다.

5. 자료 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정서 요인별 지수 점수에 대해 기술 통계치(평균과 편차)를 산출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무용 경험 여부에 따른 정서 요인(공감성, 자기 인지력, 자기 통제력, 인내력, 유연성, 낙관성, 총체적 정서)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ANOVA)을 하였다.

둘째, 무용 기술 수준, 경험 지각, 무용 종목에 따른 정서 요인(공감성, 자기 인지력, 자기 통제력, 인내력, 유연성, 낙관성, 총체적 정서)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 변량 분석(ANOVA)을 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결과

1)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정서의 요인별 점수에 대한 결과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무용 수업 경험이 개인의 정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서의 6개요인(공감성, 자기 인지력, 자기 통제력, 인내력, 유연성, 낙관성)을 중심으로 통계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정서의 요인별 점수를 지수로 환산한 결과

(단위 : 지수)

구분\정서		공감성	자 기 인지력	자 기 통제력	인내력	유연성	낙관성	총정서
경험집단	M SD	123.36 (12.33)	123.08 (21.24)	119.39 (9.34)	108.08 (12.72)	115.33 (8.32)	114.21 (11.28)	117.22 (13.51)
비 경험집단	M SD	118.16 (13.03)	114.71 (14.33)	108.46 (12.67)	100.35 (10.61)	113.34 (13.21)	106.45 (9.44)	112.08 (12.04)

<표 4>에서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정서의 요인별 평균 지수를 비교해 보면 무용학습 경험 집단이 무용학습 비경험집단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공감성에 대한 분석 결과

무용경험 여부에 따른 정서 요인 중 공감성은 남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 등에 대하여 자기도 그러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검사하는 것으로 공감성에 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를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공감성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지승합	자유도	평균지승	F	유의도
공 변 인					
부모존재	764.566	1	764.566	2.194	.139
부모교육수준	481.920	1	481.920	1.383	.240
경제수준	287.311	1	287.311	.824	.364
가족관계	165.885	1	165.885	.476	.491
친구관계	2828.803	1	2828.803	8.116	.005
주 효 과					
집 단 간	139.426	1	139.426	.400	.527
설 명	4585.547	6	764.258	2.193	.043
잔 차	146390.926	420	348.550		
전 체	150976.473	426	354.405		

<표 5>에서 공감성은 무용학습 경험 집단의 지수가 123.36이고 무용학습 비경험집단이 118.16으로 지수상으로는 차이가 있었으나 검증 결과 유의한($F(1, 420) = .400, P > .527$)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학습의 경험 여부가 공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공변인에 따른 공감성에 대한 효과를 보면, 사귀는 친구가 많을수록 공감성 지수가 높았음($P < .005$)을 보여주었고, 부모의 존재($P > .139$)나 부모의 교육 수준($P > .240$), 경제 수준($P > .364$) 및 가족 관계($P > .491$) 등의 변인에 따른 공감성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자기 인지력에 대한 분석결과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정서 요인 중 자기 인지력은 자기 자신을 알아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는 능력을 검사하는 것으로 자기 인지력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자기 인지력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도
공 변 인					
부모존재	626.433	1	626.433	2.072	.151
부모교육수준	15.115	1	15.115	.050	.823
경제수준	202.000	1	202.000	.668	.414
가족관계	406.962	1	406.962	1.346	.247
친구관계	154.528	1	154.528	.511	.475
주 효 과					
집 단 간	2528.958	1	2528.958	8.366	.004
설 명	4222.078	6	703.680	2.328	.032
잔 차	126958.245	420	302.282		
전 체	131180.323	426	307.935		

<표 6>에서 자기 인지력은 무용학습 경험 집단의 지수가 123.08로서 무용학습 비경험 집단의 지수 114.71에 비해 무용학습 경험 집단이 높았으며 집단간에 유의한($F(1, 420) = 8.366, P < .004$)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학습 경험 집단이 무용학습 비경험 집단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공변인에 따른 자기 인지력에 대한 효과를 보면, 부모의 존재($P > .151$), 부모의 교육 수준($P > .823$), 경제 수준($P > .414$) 및 가족 관계($P > .247$) 친구 관계($P > .475$) 등의 변인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자기 통제력에 대한 분석 결과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정서 요인 중 자기 통제력은 자신의 욕구나 동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조절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과민해지지 않고 차분하며, 불안정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검사하는 것으로 집단간 자기통제력에 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자기통제력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도
공 변 인					
부모존재	33.313	1	33.313	.071	.790
부모교육수준	1909.357	1	1909.357	4.062	.044
경제수준	41.477	1	41.477	.088	.767
가족관계	2327.287	1	2327.287	4.951	.027
친구관계	512.298	1	512.298	1.090	.297
주 효 과					
집 단 간	10060.948	1	10060.948	21.404	.001
설 명	14748.878	6	2458.146	5.229	.001
잔 차	197422.789	420	470.054		
전 체	212171.667	426	498.056		

<표 7>에서 자기 통제력은 무용학습 경험 집단의 지수가 119.39로서 무용학습 비경험집단의 지수 108.46에 비해 무용학습 경험 집단이 높았으며 집단간에 유의한 ($F(1, 420) = 21.404, P < .001$)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학습 경험 집단이 무용학습 비 경험집단보다 자기 자신을 조절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공변인에 따른 자기 통제력에 대한 효과를 보면, 부모의 교육 수준($P < .044$), 가족 관계($P < .027$)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경제 수준($P > .767$) 및 부모의 존재($P > .790$), 친구 관계($P > .297$) 등의 변인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5) 무용학습경험 여부에 따른 인내력에 대한 분석 결과

무용경험에 따른 정서 요인 중 인내력은 참고 견디는 힘, 즉 욕구 불만에 대한 내성을 알아보는 검사로서 인내력에 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인내력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도
공 변 인					
부모존재	257.746	1	257.746	.544	.461
부모교육수준	164.880	1	164.880	.348	.556
경제수준	747.736	1	747.736	1.577	.210
가족관계	551.836	1	551.836	1.164	.281
친구관계	355.711	1	355.711	.750	.387
주 효 과					
집 단 간	5458.355	1	5458.355	11.514	.001
설 명	8001.486	6	1333.581	2.813	.011
잔 차	199101.423	420	474.051		
전 체	207102.909	426	486.157		

<표 8>에서 인내력은 무용학습 경험 집단의 지수가 108.08로서 무용학습 비경험집단의 지수 100.35에 비해 무용학습 경험 집단이 높았으며 집단간에 유의한($F(1, 420) = 11.514, P < .001$)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학습 경험이 있는 집단이 무용학습 비경험집단 보다 참고 견디는 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변인에 따른 인내력에 대한 효과를 보면, 부모의 존재($P > .461$)나 부모의 교육수준($P > .556$), 그리고 경제 수준($P > .210$) 및 가족 관계($P > .281$), 친구 관계($P > .387$) 등의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유연성에 대한 분석 결과

무용학습 경험에 따른 정서 요인 중 부드럽고 원만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사고 방식이 융통성 있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는 것으로 유연성에 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유연성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변 량 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도
공 변 인					
부모존재	18.152	1	18.152	.042	.838
부모교육수준	15.324	1	15.324	.036	.851
경제수준	752.597	1	752.597	1.744	.187
가족관계	378.334	1	378.334	.877	.350
친구관계	3303.880	1	3303.880	7.655	.006
주 효 과					
집 단 간	394.945	1	394.945	.915	.339
설 명	4376.938	6	729.490	1.690	.122
잔 차	181261.746	420	431.576		
전 체	185638.684	426	435.772		

<표 9>에서 유연성은 무용학습 경험 집단의 지수가 115.33이고 무용학습 비경험집단이 113.34로 지수상으로는 차이가 있었으나 검증 결과 유의한 ($F(1, 420) = .915, P > .339$)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학습 경험 여부가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함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공변인에 따른 유연성에 대한 효과를 보면, 친구 관계($P < .006$)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을 뿐 다른 변인들, 즉, 부모의 존재($P > .838$), 부모의 교육 수준($P > .851$), 경제 수준($P > .187$) 및 가족 관계($P > .350$) 등의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낙관성에 대한 분석 결과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정서 요인 중 낙관성은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능력을 검사하는 것으로 낙관성에 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낙관성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도
공 변 인					
부모존재	555.941	1	555.941	.997	.319
부모교육수준	119.690	1	119.690	.215	.643
경제수준	147.041	1	147.041	.264	.608
가족관계	230.757	1	230.757	.414	.520
친구관계	1762.297	1	1762.297	3.161	.076
주 효 과					
집 단 간	5306.474	1	5306.474	9.517	.002
설 명	8760.893	6	1460.149	2.619	.017
잔 차	234171.070	420	557.550		
전 체	242931.963	426	570.263		

<표 10>에서 낙관성은 무용학습 경험 집단의 지수가 114.21로서 무용학습 비경험집단의 지수 106.45에 비해 무용학습 경험 집단이 높았으며 집단간에 유의한($F(1, 420) = 9.517, P < .002$)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학습 경험 집단이 무용학습 비경험집단보다 낙관적 성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공변인에 따른 낙관성에 대한 효과를 보면, 부모의 존재($P > .319$), 부모의 교육수준($P > .643$), 그리고 경제 수준($P > .608$) 및 가족 관계($P > .520$) 친구 관계($P > .076$)의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총 정서에 대한 분석 결과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라 총체적 정서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른 총체적 정서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도
공 변 인					
부모존재	.385	1	.385	.003	.959
부모교육수준	29.180	1	29.180	.199	.656
경제수준	3.210	1	3.210	.022	.882
가족관계	496.536	1	496.536	3.384	.067
친구관계	1388.230	1	1388.230	9.460	.002
주 효 과					
집 단 간	2444.614	1	2444.614	16.658	.001
설 명	4349.289	6	724.882	4.940	.001
잔 차	61635.137	420	146.750		
전 체	65984.426	426	154.893		

<표 11>에서 총체적으로는 무용학습 경험 집단의 지수가 117.22로서 무용학습 비경험 집단의 지수 112.08에 비해 무용학습 경험 집단이 높았으며 집단간에 유의한 ($F(1, 420) = 16.658$ $P < .001$)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학습 경험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공변인에 따른 총체적 정서에 대한 효과를 보면, 친구 관계($P < .002$)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부모의 존재($P > .959$), 부모의 교육 수준 ($P > .656$), 그리고 경제 수준($P > .882$) 및 가족 관계($P > .067$)의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서 요인 중 자기 인지력, 자기 통제력, 인내력, 낙관성 및 총정서는 무용학습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공감성과 유연성은 차이가 없었다.

9) 무용학습 경험기술 수준, 경험지각, 경험종목에 따른 정서에 대한 분석 결과

무용학습 경험 특성의 기술 수준을 ①고수준, ②중수준, ③저수준으로 분류하고 경험지각을 ①매우 중요함, ②보통, ③별로 중요하지 않음으로 구분하고 경험 종목을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창작무용,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2>, <표 13>과 같았다.

표 12. 무용경험 특성에 따른 정서의 요인별 점수에 대한 평균과 편차

구분\정서		무용기술수준			무용경험지각			무용경험종목				
		고수준	중수준	저수준	중요함	보통	별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창작무용	기타
공감성	M	128.17	122.58	120.71	121.64	121.61	122.12	118.44	119.86	120.39	124.70	122.59
	SD	(10.17)	(14.43)	(13.11)	(16.22)	(18.11)	(17.14)	(13.51)	(14.58)	(13.20)	(18.11)	(15.20)
자기인지력	M	125.67	124.85	123.55	128.09	123.59	124.07	114.44	124.33	121.00	127.16	123.29
	SD	(13.12)	(12.23)	(11.11)	(14.20)	(14.32)	(15.12)	(16.44)	(13.21)	(18.26)	(16.13)	(14.21)
자기통제력	M	123.33	118.42	119.53	123.36	119.83	118.26	120.44	115.96	118.22	123.45	115.71
	SD	(14.10)	(13.42)	(19.35)	(14.21)	(18.19)	(14.13)	(14.11)	(13.55)	(17.21)	(17.15)	(17.24)
인내력	M	103.83	104.60	112.88	106.27	107.10	110.80	108.33	108.02	106.78	112.86	103.35
	SD	(12.17)	(14.43)	(13.11)	(16.22)	(14.15)	(17.14)	(13.51)	(14.58)	(13.20)	(18.51)	(15.20)
유연성	M	108.33	118.66	114.86	102.45	116.39	117.81	104.11	112.78	121.17	118.02	120.06
	SD	(16.37)	(18.66)	(16.14)	(16.71)	(19.81)	(13.20)	(15.01)	(12.88)	(12.10)	(13.14)	(19.10)
낙관성	M	119.33	115.14	112.75	113.27	114.59	113.69	104.11	108.69	116.74	118.27	117.41
	SD	(18.63)	(17.43)	(19.01)	(14.66)	(16.10)	(15.64)	(13.54)	(14.58)	(16.77)	(12.19)	(17.27)
총정서	M	118.50	117.37	117.68	115.82	117.39	117.94	111.56	115.12	117.52	120.96	117.12
	SD	(13.27)	(16.83)	(12.14)	(16.07)	(13.14)	(16.17)	(18.71)	(13.99)	(16.55)	(11.61)	(18.77)

표 13. 무용학습 경험 특성에 따른 정서요인별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요인\항목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도
공감성	기술수준	625.852	2	312.926	.908	.406
	경험지각	10.890	2	5.445	.016	.984
	무용종목	747.925	4	186.981	.542	.705
자기인지력	기술수준	86.308	2	43.154	.131	.878
	경험지각	372.295	2	186.147	.563	.571
	무용종목	1812.662	4	453.165	1.371	.247
자기통제력	기술수준	44.172	2	22.086	.064	.938
	경험지각	198.203	2	99.101	.286	.752
	무용종목	1668.402	4	417.100	1.205	.311
인내력	기술수준	3368.223	2	1684.111	3.524	.032
	경험지각	1007.209	2	503.604	1.054	.351
	무용종목	2193.203	4	548.301	1.147	.337
유연성	기술수준	657.135	2	328.567	.811	.446
	경험지각	1350.299	2	675.150	1.667	.192
	무용종목	2326.077	4	581.519	1.436	.225
낙관성	기술수준	550.640	2	275.320	.435	.648
	경험지각	271.232	2	135.616	.214	.807
	무용종목	4020.495	4	1005.124	1.588	.181
총정서	기술수준	9.568	2	4.784	.039	.962
	경험지각	22.226	2	11.113	.090	.914
	무용종목	1243.620	4	310.905	2.528	.043

<표 12>에서 무용학습 경험, 기술수준, 경험지각, 경험종목에 따른 정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무용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지수 점수가 높은 요인은 공감성, 자기 인지력, 자기 통제력, 낙관성 그리고 총정서였으나 인내력과 유연성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무용학습 경험 지각에 따른 차이는 “도움이 매우 크다”고 지각하는 집단은 자기 인지력(128.09)과 자기 통제력(123.36)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을 뿐, 다른 집단과 정서 요인의 점수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무용학습 경험 종목에 따른 집단별 점수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정서지수가 요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각 요인 내에서의 조건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정서 요인에서만 한국무용(111.56)과 창작무용(120.96)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고 그의 정서요인에서의 조건간에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표 13>에서 정서의 각 요인별 무용학습 경험 특성에 따른 공변량 분석 결과를 보면, 기술 수준에 따라 인내력($P < .032$)에서 차이를 보였고, 무용 종목에 따라 총 정서($P < .043$)에서 차이는 보였을 뿐, 다른 요인의 조건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두 가지 조건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무용실기 경험 자체가 정서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무용 동작의 숙련성 정도나 무용에 대한 지각, 그리고 무용 수업에서 경험한 종목의 종류가 개인 정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

2. 논 의

본 연구는 무용학습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바람직한 정서 함양을 위한 무용학습 경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무용 학습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착수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공감성은 타인이 느끼는 것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스스로 타인의 입장이 되어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써 심지어는 우리가 동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또한, 타인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인 관계를 통해 삶의 기쁨을 느끼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무용학습 경험 집단과 무용학습 비경험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 시기는 개성이 강하고 개인주의 의식이 팽배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 인지력은 자기 자신의 분수를 파악하고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사용해 나갈 것인가를 알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으며 어느 정도 감정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감정에 대한 명쾌한 인식은 자신의 다른 성격적 특징을 보완해 주기도 한다. 즉, 이들은 자율적인 태도를 지니고 자신의 한계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불쾌한 기분이 되었을 때에도 너무 깊게 생각하거나 몰두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무용학습 경험집단과 무용학습 비경험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자아 인식의 단계를 거치며 감성을 키워 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이 무용 학습을 통하여 지적인 활동을 동반한 창조적인 표현활동을 배우고, 신체운동에 의해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실현의 표현을 할 수 있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기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 통제력은 마음의 기능을 억압하지 않고 욕구와 동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기적인 면과 충동적인 행동에서 벗어나고 사회 규범과 규율에 동조하여 극단적인 행동이나 우범적인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척도가 높은 사람이 보다 성숙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무용학습 경험집단과 무용학습 비경험집단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자율적인 창작 과정을 통하여 공포나 지루함을 덜어주며 주제별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진행될수록 높은 적응력을 보이고 충동을 억제하고 분노를 풀어 버리며 불안을 완화시키고 침체된 기분을 북돋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주위로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는가의 여부는 후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바람직한 성격을 지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적능력과 지적 활동, 운동 기능, 사회적 상호작용, 심리적인 분위기와 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내력은 안정적이고 참고 견디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적어졌다고 한다.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욕구 불만에 대한 내성이 약해져서 충동적인 사람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무용학습 경험집단과 무용학습 비경험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용학습을 통한 기능적인 면에서의 반복 연습을 통해 집단 속에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인식하는 인내심이 길러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연성은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사고 방식이 완고한가 유연한가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사물을 보는 관점이나 사고 방식이 융통성 있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용학습 경험 집단(115.33)과 무용학습 비경험집단(113.34) 간의 E. Q 지수 점수가 두 집단 모두 A부터 G까지 7단계 평가 범위에서 중상의 수준(C 등급)을 보여 줌으로써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이 성인의 정서적 특성인 보수적 관념보다 유연하고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청소년기의 성장, 발달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낙관성은 사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비관적인가 낙관적인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련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갖는 것을 말한다. E. Q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낙관주의는 아무런 험난한 과정에 처하더라도 무기력이나 절망,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태세이다. 그런데 무용학습 경험 집단과 무용학습 비경험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무용학습이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무용 경험을 통하여 정서적 만족뿐만 아니라 무용이 갖는 비언어적 설득력에 의하여 긍정적인 사회관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대리 체험을 통해 타인을 존중할 줄 알게 되며 더욱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훈련시켜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므로 긍정적 자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서 요인별 점수 차이는 적었지만 총체적 정서는 무용 학습을 경험한 학생 집단이 비경험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용 동작의 숙련성 정도나 무용에 대한 지각, 무용 수업에서 경험한 종목의 종류가 개인 정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교육 경험 자체가 단편적인 주지교육을 통한 두뇌 계발보다는 인간의 정서 순화와 사회적 성격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등에 매우 필요한 교육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무용교육이 청소년 시기의 정서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김제은(1997), 하은정(1994), 김미자(1996), 윤종옥(1997), 윤미영(1996), 조은경(1996), 김복락(1992)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풍부한 감성을 표현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무용학습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무용학습 경험이 청소년기의 정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바람직한 정서 발달을 위해 무용학습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각시키고 무용학습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착수하였다.

피험자는 여수시에 소재한 4개 여자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무용학습 경험 집단 156명, 무용학습 비경험 집단 311명, 총 4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6개의 정서요인(공감성, 자기 인지력, 자기 통제력, 인내력, 유연성, 낙관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E.Q테스트를 사용하여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학습 경험여부에 따라 자기 인지력, 자기통제력, 인내력, 낙관성, 총체적 정서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공감성, 유연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둘째, 무용기술 수준에 따라 인내력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공감성, 자기 인지력, 자기 통제력, 유연성, 낙관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무용경험 지각에 따라 공감성, 자기 인지력, 자기 통제력, 인내력, 유연성, 낙관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넷째, 무용경험 종목에 따라 총정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공감성, 자기 인지력, 자기 통제력, 인내력, 유연성, 낙관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장기 및 청소년기에 있어서 무용교육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학습 활동 중 정의적인 예술교과에서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표현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회적 욕구와 성취의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될 것이며 따라서 정서의 안정과 더불어 긍정적인 인간상을 형성할 것이며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풍부한 감성을 표현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정서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무용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제언

이 연구는 무용교육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무용학습 경험자와 무용학습 비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앞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을 토대로 차후 연구에서는

첫째, 대상자의 특성이 고려되어 정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정서발달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인 무용학습을 위해 적절한 무용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 교육의 학습환경과 조건 그리고 교사의 교육적 전문성이 교육 목표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지원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광룡(1991), 교육심리학, 서울 : 창지사.
- 김미자(1996), “정서교육을 위한 Physical Activity의 필요성”, 서울교대 학생지도연구 8호.
- 김복락(1992), “무용학습이 성장기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재은(1997), “무용교육과 정서적 반응 : 그 교육적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8집.
- 김화례(1998), “무용교육 정진화를 위한 방향모색”, 학술논문집 5권, 51.
- 김화숙(1997), “청소년을 위한 무용교육,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8집, 174.
- 박혜정(1995), 신체표현, 서울 : 학지사, 3.
- 손경순(1982), “무용교육의 필요성과 무용교육과정 모형설계의 방향모색”, 한국무용연구 제1집, 2.
- 윤미영(1996), “발레무용교육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7.
- 윤종옥(1997), “무용교육이 청소년의 감성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2.
- 조은경(1996), “무용교육을 통한 성격형성이 EQ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13.
- 하은정(1994), “정서발달을 위한 창작무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한국무용학회(1996), 무용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 한학문화사, 192.
- 황태호(1997), 당신의 E.Q는 얼마, 서울 : 비전코리아, 23~29, 47~194.
- H.Doubler, M.,(1957), *DANCE : A Creative Art Experience*,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75.